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
세상과 소통을 꿈꾸다

글 · 김미영 kimmy@hani.co.kr

한동안 까까머리를 트레이드마크처럼 고수했던 가수 지현(37)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어
깨 남짓까지 곱게 자라있었다. ‘여성을 노래하는’ 가수인 그는 2002년 1집 앨범 〈후(逅)〉를
발표한 뒤 대학가와 여성문화계 등 작고 소박한 무대에서 가창력과 도발적인 이미지를 선
보이며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이 바닥에서 나름 알려진 유명 가수인 그는 1997년 데뷔 이
래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으로 불린다.

지현이 직접 만드는 노랫말은 그 자신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 땅의 모든 여성을
대변한다. 그의 삶이 곧 여성들의 삶인 탓이다. 그럼에도 대중가수가 ‘페미니스트 가수’로
규정지어지는 것은 큰 약점일 수도 있다.

“페미니스트로서의 내 정체성이 중요한 가수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페미
니스트 가수’라는 점을 적극 알려왔고요. 여성을 억압하는 것 중에서도 성폭력이 가장 크
게 다가왔는데, 그 이유는 가부장제 여성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치졸한 방법의 폭력이잖아
요. 저뿐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넘어서야 할 장애이기도 하구요.”

그가 만드는 노래에는 그 자신뿐 아니라 여성들의 인생과 삶, 그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볍게는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일삼는 남성들을 꼬집는 ‘아저씨 싫어’(1집 수록곡)에
서부터 궁극적으로는 여성이 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마스터베이션’(1집 수록곡)까지.
그가 세상을 향해 가졌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 페미니즘이고, 그런 해답을 준
사람들이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이다.

“‘마스터베이션’이란 노래 듣고 다닌 게 2000년 안티미스코리아 대회 때부터였어요.
당시만 해도 마스터베이션이 여자들한테 주는 느낌은 금기와 죄책감이었죠. 저도 그렇지
만, 많은 여성들이 이 금기를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더 많이 부르고 다녔죠. 제가 노래
를 부르는 동안만이라도 관객들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라고. 성뿐만 아니라 자
신의 취향에 대한 지향점을 찾으라는 의미로 말이죠.”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여성주의 문화운동 기획자, 여성 성문화 워크숍 강사는 지
현을 따라다니는 또 다른 수식이다. 노래만으로 ‘여성’을 말해야 하는 가수의 무대가 너무
좁기 때문일까. 2007년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욕망찾기 프로젝트 함께 기획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의 욕망을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바쁜 공연과 콘서트에도 짬
을 내 지난해 12월까지 성문화와 성평등, 소외여성 목소리 찾기, 하자 작업장 학교, 장애여
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서 강단에 서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여성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성이 예비 피해자가 아니라 성에 있
어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성을 어떻게 성적 주체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성
문화를 기획하다보니, 직접 강사로까지 나서게 됐네요.”

페미니스트 기질을 타고난 집안 내력

지현의 페미니스트 기질은 미용사였던 외할머니, 대학 교수인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 혈통부터 타고 났다고 볼 수 있다. 모계 질서가 중요한 집이어서 남녀 차별이 없었고, 외증조 할머니부터 지현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가 탄탄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와 함께 외할머니 댁에 가는데, 이 분들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 시절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죠. 하지만 전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녀평등도 마찬가지였고요. 학교에 들어가고, 사회에 나간 뒤 상처를 많이 받았죠. 자연스럽게 페미니즘을 옹다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가수는 그가 꿈꿨던 직업 중의 하나. 노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성가대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했다. 대학 시절에는 ‘또 하나의 문화’라는 동인모임에서 활동하며 연기와 노래를 했다. 전공은 가구디자인이었지만, 졸업 즈음에 “평생 페미니스트 가수로 살아보면 어떨까?” 고민한 끝에 97년 선배 페미니스트 가수인 안혜경 씨, 여성 운동계에서 음악에 관심 있는 언니들과 함께 인디밴드인 <마고> 멤버로 합류했다. 하지만 활동 기간은 길지 않았다.

그는 “여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노래를 연습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노래로 나누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며 “멤버들과 마고의 전망을 논의하던 중 ‘페미니스트’가 붙지 않으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1년 뒤 탈퇴했다.”고 했다.

삭발하니 여성이 더 편한 세상 ‘아이러니’

그가 처음으로 머리를 짧게 자른 건 1999년. 그 이전까지는 긴 머리를 고수했지만, 그때 같



“예전에는 외적으로 강해 보이는 게 여성인 나의 무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적으로 많이 성숙해진 만큼 무기가 필요 없고, 그래서 머리를 기르게 된 거죠. 이제는 머리를 자르는 데 있어서 용기도 필요한 시기이구요.”

이 어울렸던 친구들도 머리를 밀곤 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스포츠로 깎았다. 여성성의 상징인 긴 머리를 자르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미련도 없었다.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머리를 자른 뒤 더 편해진 삶에 놀랐다고 한다. 긴 머리가 보여주는 상징성이 정말 크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해야 할까. 좌석버스나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발길을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줄었다. “여자처럼 안 보이는 게 살기 편한 것이었다는 걸 새삼 느꼈죠. 그 다음부터는 더 짧게 머리를 자르게 됐죠.”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짧은 머리를 포기한 건 2004년부터다. 이때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일종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한 방법이었다. 2003년 SBS 다큐멘터리 <다큐 여자>에 소개된 뒤 유명세를 탄 뒤 운신의 폭이 줄면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겹쳐 왔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단조로운 가수활동에 대한 회의와 논문 작업에 대한 부담까지 겹쳤다.

3년을 꼬박 앓았다. 2006년 회복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다만 달라진 게 있었다. 이전까지 앨범을 낸 가수로서 무대에 서는 것이 고작이었다면, 그는 노래뿐 아니라 생활까지도 여성과 함께 나누는데 까지 활동의 폭을 넓힌 것이다.

하자 작업장 학교에서의 노래수업, 소외여성 목소리 찾기 교육 프로그램 진행, 위안부 할머니들과 탈 성매매 여자자립지원센터인 새움터에서의 노래수업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고민도 늘어갔다. 노래만으로 이들 여성의 삶이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깨달음 때문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새움터 언니들과 함께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다. 언니들이 겪었던 상처와 아픔뿐 아니라 그의 고통과 상처까지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란다. “개개인의 삶, 인생관이 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들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요즘 저의 새로운 고민입니다.” 즉, 노래는 그에게 삶이자 치유 행위다.

“화려한 조명 속 높은 무대에서 관객과 거리를 유지하는 가수일 것인가, 소박하지만 관객과 소통하는 가수가 될 것인가,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죠.”

2004년 이후 기르기 시작한 머리, 지금까지 짧은 단발머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외적으로 강해 보이는 게 여성인 나의 무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적으로

지현의 페미니스트 기질은 미용사였던 외할머니, 대학 교수인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 혈통부터 타고 났다고 볼 수 있다. 모계 질서가 중요한 집이어서 남녀 차별이 없었고, 외증조 할머니부터 지현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가 탄탄했다.



많이 성숙해진 만큼 무기가 필요 없고, 그래서 머리를 기르게 된 거죠. 이제는 머리를 자르는 데 있어서 용기도 필요한 시기이구요.”(웃음)

다재다능한 싱어송 라이터

그는 작곡가로서도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2006년 이후 단편영화의 OST 작업에도 참여했다. <늘 채식을 결심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채식초보’ 여성주의자들을 위한 실행하기 딱 쉬운 채식 실천 길라잡이 비디오>, <오버 더 레즈보우>, <백수에 관한 두세 가지 것들> 등이다.

그럼에도 그의 1집 정규앨범이 나온 지 어언 7년이 지났지만, 그에겐 아직까지 2집이 없다. “고민은 늘 계속하고 있어요. 2집을 내고 싶죠. 현재까지 만든 서너 곡을 모아 싱글을 낼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만들어야 할까요? 대중가수들은 홍보수단인 음반이 꼭 필요하겠지만, 제게 음반이 이력서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주변에서도 앨범보다는 무대에서의 라이브 실력이 더 좋다고 해요.”(웃음)

지현, 그는 어떤 가수로 기억되고 싶을까. “다정함과 따뜻함. 가수이든 문화 활동가이든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데뷔 초에는 큰 무대 욕심도 많았지만 지금은 관객과 소통하는 게 더 소중한데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노래를 하고 싶어요.” *지현*

글 김미영 | 한겨레신문 기자
자료사진 지현